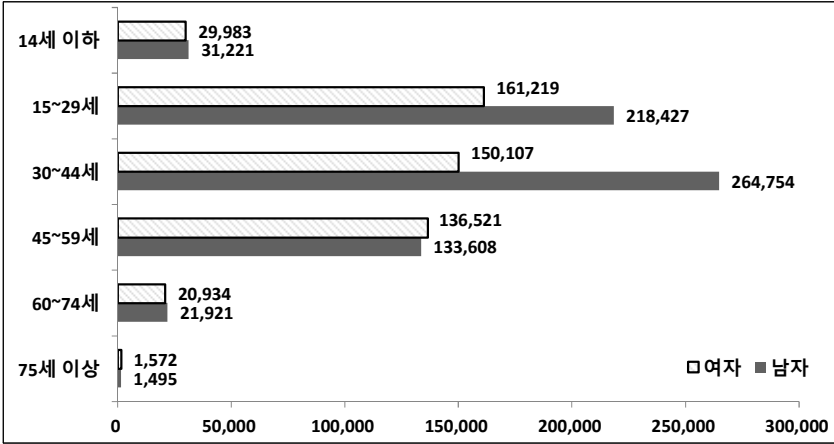


1. 다음 <표>와 <그림>은 2017년 등록외국인의 성별·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등록외국인의 성별 현황(2017년)
(단위: 명)

구분	여자	남자	전체
등록외국인 수	500,336	671,426	1,171,762
전년대비 증가율	5%	2%	()

<그림> 등록외국인의 연령별 현황(2017년)
(단위: 명)



※ 미등록외국인은 없음

<보 기>

- ㄱ. 29세 이하 등록외국인 수는 전체 등록외국인 수의 50% 이상이다.
 ㄴ. 45~59세 남자와 여자의 등록외국인 수 차이는 14세 이하 남자와 여자의 등록외국인 수 차이와 60~74세 남자와 여자의 등록외국인 수 차이의 합보다 크다.
 ㄷ. 2017년 전체 등록외국인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 이상이다.
 ㄹ. 등록외국인 수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30~44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표>는 OECD 주요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OECD 주요국의 장래인구추계
(단위: %)

국가	인구성장률			연령구성비						총부양비	
				2015년			2065년				
	'15년 ~ '20년	'35년 ~ '40년	'60년 ~ '65년	0세 ~ 14세	15세 ~ 64세	65세 이상	0세 ~ 14세	15세 ~ 64세	65세 이상	'15년	'65년
그리스	-0.2	-0.4	-0.7	14.6	64.0	21.4	12.1	53.0	34.9	56.2	88.6
독일	-0.1	-0.3	-0.4	12.9	65.9	21.2	13.3	53.6	33.2	51.8	86.7
멕시코	1.2	0.6	0.0	27.6	65.9	6.5	14.9	59.7	25.4	51.7	67.5
미국	0.7	0.5	0.4	19.0	66.3	14.8	17.3	58.9	23.9	50.9	69.9
스위스	0.8	0.4	0.2	14.8	67.2	18.0	15.3	55.7	29.1	48.8	79.6
스페인	0.0	-0.1	-0.5	14.9	66.3	18.8	12.7	53.8	33.6	50.8	86.0
영국	0.6	0.4	0.2	17.8	64.5	17.8	16.2	57.6	26.2	55.1	73.6
이탈리아	0.0	-0.2	-0.4	13.7	63.9	22.4	13.3	52.9	33.8	56.5	89.1
일본	-0.2	-0.6	-0.6	12.9	60.8	26.3	12.8	50.8	36.5	64.5	97.0
캐나다	0.9	0.5	0.3	16.0	67.9	16.1	15.1	56.8	28.0	47.3	75.9
프랑스	0.4	0.3	0.1	18.5	62.4	19.1	16.3	57.0	26.6	60.3	75.4
한국	0.4	-0.2	-1.0	13.8	73.4	12.8	9.6	47.9	42.5	36.2	108.7
호주	1.3	0.8	0.6	18.7	66.3	15.0	16.7	58.8	24.5	50.9	70.2

- ※ 인구성장률: 두 시점 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frac{\text{유소년인구}(0\sim 14\text{세})}{\text{생산가능인구}(15\sim 64\text{세})} \times 100$
 ※ 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65\text{세이상})}{\text{생산가능인구}(15\sim 64\text{세})} \times 100$

<보 기>

- ㄱ. OECD 주요국 가운데 2015년 대비 2065년에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ㄴ. OECD 주요국 가운데 2015년 대비 206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0%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ㄷ. OECD 주요국 가운데 2015년 유소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ㄹ. OECD 주요국 가운데 주어진 기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가는 2015년 대비 2065년에 유소년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OECD 주요국 가운데 2065년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이고,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ㄹ
 ⑤ ㄷ, ㄹ, ㄹ

3. 다음 <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 추이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 추이(2014~2016년)

구분	제조업체 (개)	총 매출액 (억원)	총 판매량 (톤)	내수용		수출용	
				매출액 (억원)	판매량 (톤)	매출액 (억원)	판매량 (톤)
2014	460	16,310	30,545	(b)	29,500	670	1,045
2015	(a)	18,230	34,568	17,326	()	(c)	1,551
2016	()	()	43,123	20,175	41,142	(d)	1,981
2016년 기준 2015년 대비 증감률(%)	0.0	16.6	24.7	16.4	24.6	()	27.7

<표 2>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2016년)

구분	제조업체 현황		매출액 규모	
	업체 수(개)	비중(%)	매출액(억원)	비중(%)
총계	()	100.0	21,260	100.0
10억원 미만	350	71.9	593	2.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1	(e)	1,834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5	5.1	1,670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7	3.5	2,821	(f)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	()	2,100	9.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7	()	4,644	21.8
1,000억원 이상	2	()	7,598	35.7

<보 기>

- ㄱ. (a)는 480이다.
- ㄴ. 내수용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2016년이 2015년보다 크다.
- ㄷ. (c)보다 (d)가 크다.
- ㄹ. (f)가 (e)보다 크다.
- ㅁ. 내수용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4. 다음 <표>는 2018년 10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통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통계(2018년 10월)

(단위: 십억원)

구 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세입 세출외	비금융성 기 금	기 업 특별회계	합 계
통합재정수입(A)	266,010	12,895	89	100,656	1,465	381,115
경상수입 ¹⁾	265,949	12,297	89	99,412	1,461	379,208
자본수입 ²⁾	61	598	0	1,244	4	1,907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B)	220,201	33,340	6,269	90,635	2,018	352,463
경상지출 ³⁾	214,572	16,398	6,269	74,589	1,862	313,690
자본지출 ⁴⁾	4,650	16,155	0	2,403	156	23,364
순융자 ⁵⁾	979	787	0	13,643	0	15,409
통합재정수지 (A-B)	45,809	-20,445	-6,180	10,021	-553	28,652

- 1) 경상수입
· 조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 세외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벌금 및 물수금,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 2) 자본수입: 고정·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수입 등
- 3) 경상지출: 인건비, 임차료, 이자지급, 보조금 및 지방정부 등에 대한 경상이전
- 4) 자본지출: 고정·재고자산 매입비,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본이전
- 5) 순융자: 융자지출(>0)에서 융자회수(>0)를 뺀 값임

<보 기>

- ㄱ. 통합재정수입에서 비금융성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서 비금융성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 ㄴ. 경상수지(= 경상수입 - 경상지출)가 흑자(>0)인 회계·기금유형은 일반회계와 비금융성기금이다.
- ㄷ. <표>에서 특정 부처의 ‘융자회수금’이 누락되었다면, 실제 통합재정수지는 28조 6,520억원보다 클 것이다.
- ㄹ. 세입세출외를 제외하고 자본수입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회계·기금 유형은 기업특별회계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5. 다음 <정보>와 <표>는 펀드 운용사에 지급하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 보>

○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 미만: 펀드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 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 × 결성규모 적용 요율

<결성규모 적용 요율>

- 출자약정액 300억원 이하: 2.5% 이하
- 출자약정액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이하
- 출자약정액 600억원 초과: 2.1% 이하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추가인센티브: 고용창출우수기업 10% 이내, 청년 고용창출을 한 경우 15% 이내

※ 기준수익률은 0~3%의 범위에서 개별 펀드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최근 4년간 펀드 운용사 보수 지급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펀드 운용사 수(개)		274	312	357	404
관리 보수	관리보수액(억원)	1,057	1,291	1,606	1,650
성과 보수	성과보수액(억원)	200	251	218	299
	성과보수 수령 운용사(개)	15	9	10	12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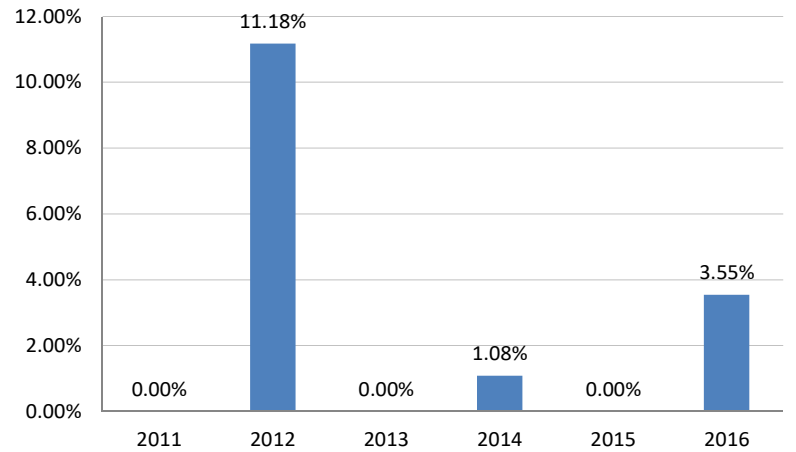
- ㄱ. 결성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약정총액이 500억원인 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는 관리보수액은 최대 11억 5,000만원이다.
- ㄴ. 추가인센티브는 없다고 가정할 때,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10억원인 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는 성과보수액은 최대 2억원이다.
- ㄷ. 성과보수 수령 운용사에 대한 평균 성과보수액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ㄹ. 펀드 운용사 1개사가 수령하는 평균 보수액(= 관리보수액 + 성과보수액)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① ㄱ, ㄴ
③ ㄴ, ㄹ
⑤ ㄱ, ㄷ, ㄹ

- ② ㄱ, ㄷ
④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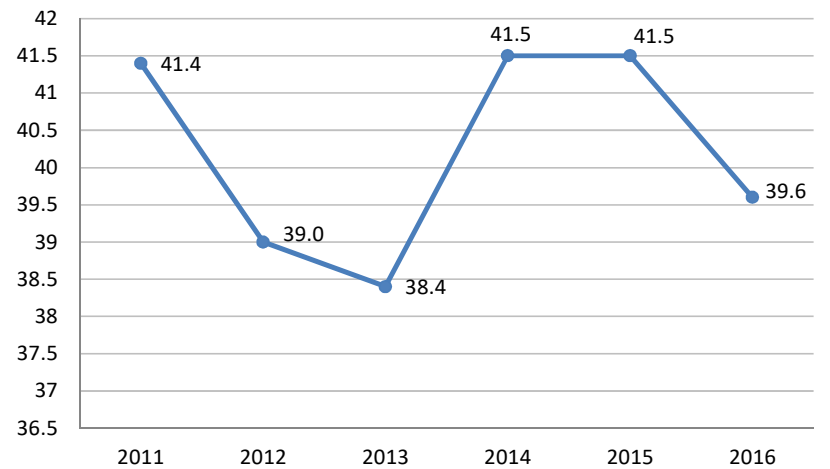
6. 다음 <그림>은 발농사 기계화율과 벼농사 기계화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발농사 기계화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그림 2> d값의 변동 추이

(단위: %)



※ d = 벼농사 기계화율 - 발농사 기계화율
※ 2016년 벼농사 기계화율은 97.9%임

<보 기>

- ㄱ. 2016년 발농사 기계화율은 58.0%이다.
- ㄴ. 2014년 대비 2015년의 벼농사 기계화율은 변함이 없다.
- ㄷ. 2012년 이후 벼농사 기계화율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14년이다.
- ㄹ. 2013년에는 벼농사 기계화율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 ㅁ. 2014년 벼농사 기계화율은 97.0%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7. 다음 <표>는 관광수지 및 관광 출입국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관광수지 및 관광 출입국 현황(2010~2016년)
(단위: 천명, 백만달러, %)

연도	외국인 입국		자국민 출국		관광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	8,798	12.5	12,488	31.5	-3,987	10,291	5.4	14,278	29.4
2011	9,795	11.3	12,694	1.6	-3,184	12,347	20.0	15,531	8.8
2012	11,140	13.7	13,737	8.2	-3,138	13,357	8.2	16,495	6.2
2013	12,176	9.3	14,846	8.1	-2,816	()	8.7	()	()
2014	14,192	16.5	16,081	8.3	-1,758	()	21.9	()	12.3
2015	13,232	-6.8	19,310	20.1	-6,436	15,092	()	21,528	10.6
2016	17,242	30.3	22,383	15.9	-6,489	17,200	14.0	23,689	10.0

※ 관광수지 = 관광수입 - 관광지출

<보 기>

- ㄱ. 2009년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광수지 적자 규모 중 가장 작다.
- ㄴ. 2014년의 관광수입 금액보다 2013년의 관광지출 금액이 더 크다.
- ㄷ.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국민 출국 인원의 전년대비 증감폭이 가장 큰 연도는 2015년이다.
- ㄹ. 2017년 자국민 출국 인원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외국인 입국 인원이 전년대비 45% 증가한다면, 2017년 외국인 입국 인원이 자국민 출국 인원보다 많아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8. 다음 <표>는 2012~2018년 물가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물가지수(2012~2018년)

종류 연도	총 지수		신선식품		생활물가	
	지수	증감률 (%)	지수	증감률 (%)	지수	증감률 (%)
2012	96.8	2.2	109.3	5.9	98.7	4.2
2013	98.0	(a)	107.9	(b)	99.4	(c)
2014	99.3	(d)	97.9	(e)	100.2	0.8
2015	100.0	0.7	100.0	2.1	100.0	(f)
2016	(g)	1.0	(h)	6.5	(i)	0.7
2017	102.9	1.9	113.1	6.2	103.1	2.4
2018	(j)	1.6	117.2	3.6	(k)	1.6

- ※ 물가지수는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함
- ※ 모든 지수와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 증감률(%) = $\frac{\text{해당년도 지수} - \text{전년도 지수}}{\text{전년도 지수}} \times 100$

<보 기>

- ㄱ. (b), (c), (e), (f)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c), (f), (b), (e)이다.
- ㄴ. (d)는 (a)보다 크다.
- ㄷ. (g), (h), (i) 중에서 가장 큰 것은 (h)이고 가장 작은 것은 (i)이다.
- ㄹ. (j)와 (k) 중 더 큰 것은 (j)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9. 다음 <표>는 시중에 판매중인 자동차의 차종별 판매가격, 구매보조금, 에너지 소비효율 등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차종별 판매가격, 구매보조금 및 세금감경 내역
(단위: 만원)

구분	차종	판매 가격	구매보조금		세금 감경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기 자동차	A1	4,090	1,119	644	최대 590
	A2	4,558	1,044		
	A3	4,207	1,017		
	A4	4,808	1,200		
	A5	4,590	849		
	평균	4,451	1,046	644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B1	4,078	500	—	최대 270
	B2	3,373			
	B3	4,103			
	B4	3,448			
	B5	3,800			
	B6	4,830			
	평균	3,939	500	—	—
수소 자동차	C1	7,337	2,250	1,102	최대 720
내연기관 자동차	D1	2,505 ~3,118	—	—	—

※ 차종별 세금 감경 혜택은 최대 수준으로 반영함
 ※ 구매가격 = 판매가격 - 구매보조금 - 세금 감경액
 ※ 구매보조금 = 정부 구매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구매보조금

<표 2> 차종별 에너지 소비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내역

구분	차종	에너지 소비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km)	배터리 용량 (kWh)
		km/kWh	km/L	km/kg		
전기 자동차	A1	6.3	—	—	191	28.0
	A2	5.2	—	—	180	30.0
	A3	4.5	—	—	213	35.9
	A4	5.5	—	—	383	60.0
	A5	5.6	—	—	133	23.8
	평균	5.5	—	—	220	30.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B1	4.8	17.1	—	45	9.8
	B2	5.5	20.5	—	46	9.8
	B3	4.6	16.4	—	44	9.8
	B4	5.5	19.2	—	40	8.9
	B5	5.3	17.8	—	89	18.4
	B6	6.4	21.4	—	40	8.8
	평균	5.4	18.7	—	()	()
수소 자동차	C1	—	—	96.2	609	1,102
내연기관 자동차	D1	—	16.1	—	—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전기구동 효율(km/kWh)과 복합구동 효율(km/l)로 구분됨

<보 기>

ㄱ. 전기자동차 중 구매가격이 가장 낮은 차종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전기자동차 중 가장 높다.

ㄴ. 구매가격이 가장 높은 차종이 1회 충전 주행거리 또한 가장 길다.

ㄷ.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500만원 인하할 경우 수소자동차 C1의 구매가격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B3보다 높아진다.

ㄹ.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이 모두 평균 이상인 차종은 B5뿐이다.

ㅁ. 전기자동차 중 판매가격에서 구매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차종은 A3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0. 다음 <표>는 H대학교의 행정학개론을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H대학교 행정학개론 성적 분포

점수(점)	등급	인원(명)	상대백분율	누적백분율
95 이상	A+	5	12.5%	()
90 이상 95 미만	A	()	()	27.5%
85 이상 90 미만	B+	()	()	55.0%
80 이상 85 미만	B	5	12.5%	()
75 이상 80 미만	C+	()	15.0%	()
70 이상 75 미만	C	4	()	92.5%
65 이상 70 미만	D+	()	()	97.5%
60 이상 65 미만	D	()	()	()
60 미만	F	()	()	100.0%

※ H대학교는 강의별 수강생의 상위 30% 이내의 범위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수강생의 상위 70% 이내의 범위에서 B 이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보 기>

ㄱ. 행정학개론의 등급이 B+인 학생의 수는 10명이다.

ㄴ. 행정학개론의 등급이 D+ 이하인 학생의 수는 3명이다.

ㄷ. 행정학개론의 등급이 C 이상 B+ 이하인 학생의 수는 27명이다.

ㄹ. 행정학개론의 등급이 B+인 학생 1명의 등급을 A로 수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표>는 A국가의 2014~2017년 사이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통계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신재생에너지원별 매출액(2014~2017년)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태양광	63,358	75,637	70,248	64,358
태양열	321	290	266	167
풍력	12,866	14,571	11,643	10,957
연료전지	2,284	2,837	3,000	3,262
지열	1,083	1,430	1,223	1,006
수열	－	29	34	47
수력	145	129	141	107
바이오	11,055	12,390	10,968	12,597
폐기물	7,940	5,763	3,367	2,964
합계	99,052	113,076	100,890	95,465

※ 신재생에너지원은 위에 제시된 9개의 항목으로만 구성됨

<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업체 수(2014~2017년)
(단위: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태양광	123	127	108	118
태양열	24	21	17	17
풍력	34	37	30	27
연료전지	11	15	15	15
지열	26	26	25	24
수열	－	3	3	3
수력	4	4	3	5
바이오	100	128	116	121
폐기물	125	132	101	124
합계	447	493	418	454

<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고용 인원(2014~2017년)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태양광	8,239	8,698	8,112	7,522
태양열	283	228	219	195
풍력	2,424	2,369	1,813	1,853
연료전지	562	802	662	588
지열	504	541	436	335
수열	－	46	28	25
수력	81	83	86	100
바이오	1,441	1,511	1,604	1,647
폐기물	2,011	1,899	1,453	1,662
전체	15,545	16,177	14,413	13,927

<보 기>

- ㄱ.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 모두 기업체 1개당 고용 인원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ㄴ. 주어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야는 없다.
- ㄷ. 2015년에 기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 가장 낮은 분야는 수열이다.
- ㄹ. 주어진 기간 동안 태양광 사업의 고용인원은 매년 전체 신재생 에너지 고용 인원의 50%를 넘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12.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소작농 A~D가 경작한 토지의 결당 연간 표준 수확량과 연간 실제 수확량 및 소작료 지불 방식에 대한 자료이다. 소작농 A~D가 지주로부터 토지 2결을 빌려 3년간 농사를 지었을 때 소작료를 지불하고 남은 몫이 많은 소작농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소작인별 소작 현황

소작농	소작 규모	결당 연간 표준 수확량	결당 연간 표준 수확량 대비 연간 실제 수확량			소작료 지불 방식	
			1년차	2년차	3년차	지불 방식	결당 소작료
A	2결	250두	120%	110%	80%	X방식	100두
B	2결	250두	110%	120%	130%	Y방식	50%
C	2결	300두	100%	120%	90%	Y방식	60%
D	2결	200두	110%	110%	120%	Y방식	50%

※ 조선 후기 소작료 지불 방식에는 수확량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량을 지불하는 X방식(정액세)과 매해 결당 실제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Y방식(정률세)이 있음

- ① A-B-C-D
- ② A-D-B-C
- ③ B-C-D-A
- ④ B-D-C-A
- ⑤ D-A-B-C

13. 다음 <표>는 주요 국가의 산업별 기술수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조건>을 이용하여 A, B, E에 해당하는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서비스, 화학)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주요 국가의 산업별 기술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산업별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합계
농림수산	6,110	1,483	555	46,180	54,328
섬유	7,478	134	212	52,962	60,786
A	53,339	51,655	114,680	77,819	297,493
소재	2,766	1,858	47	4,808	9,479
B	145,304	55,198	29,249	421,036	650,787
C	590,014	36,748	107,885	439,106	1,173,753
건설	18,300	19,477	624	10,381	48,782
D	397,927	279,014	507,186	974,834	2,158,961
E	193,014	97,669	64,139	43,279	398,101
기타	98,283	30,059	20,283	23,537	172,162

<조 건>

- 기계와 전기전자는 주요 국가 가운데 수출액 하위 2개국의 수출액을 합한 값보다 수출액이 두 번째로 큰 국가의 수출액이 더 크다.
- 미국의 정보통신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의 합은 미국의 전기전자 수출액보다 크다.
- 기계와 정보통신은 주요 국가 가운데 중국의 수출액이 가장 크다.

- | | | | |
|---|----------|----------|----------|
| | <u>A</u> | <u>B</u> | <u>E</u> |
| ① | 화학 | 기계 | 서비스 |
| ② | 화학 | 서비스 | 기계 |
| ③ | 전기전자 | 서비스 | 기계 |
| ④ | 서비스 | 기계 | 화학 |
| ⑤ | 서비스 | 전기전자 | 화학 |

14. 다음 <표>는 도시의 주관적 환경친화성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 기준과 평가 대상 도시의 특성 및 객관적 환경친화성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 <표>와 <공식>에 근거하여 종합 환경친화성 점수가 높은 도시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주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계산 기준

도시의 특성 \ 구분	기준	점수(점)
도시 내 하천 유무	있음	20
	없음	0
도시 내 호수 수	2개 이상	30
	1개	10
	없음	0
환경보호 전담 인력	1,000명 이상	50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30
	100명 이상 500명 미만	20
	100명 미만	10

<표 2> 평가 대상 도시의 특성 및 객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도시	특성			객관적 환경친화성 점수(점)			
	도시 내 하천 유무	도시 내 호수 수	환경보호 전담 인력	공기 오염도 점수	토양 오염도 점수	동물 보호 점수	식물 보호 점수
A	있음	4개	412명	60	85	60	80
B	없음	1개	893명	40	20	48	70
C	있음	없음	10명	85	65	26	95
D	없음	3개	789명	75	90	35	100

<공 식>

- 주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 ‘도시 내 하천 유무’ 점수 + ‘도시 내 호수 수’ 점수 + ‘환경보호 전담 인력’ 점수
- 객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 (0.4 × 동물보호 점수) + (0.6 × 식물보호 점수) - (0.25 × 공기오염도 점수) - (0.75 × 토양오염도 점수)
- 종합 환경친화성 점수 = (0.5 × 주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 (0.5 × 객관적 환경친화성 점수)

- ① A - B - C - D
 ② A - B - D - C
 ③ B - A - C - D
 ④ B - A - D - C
 ⑤ D - B - C - A

15. 다음 <표>는 프로야구 선수 중 6명의 타격 기록에 관한 자료이다. 이 <표>와 <정보>를 참고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프로야구 선수 6명의 타격 기록
(단위: 회)

구분	타석 수	볼넷	몸에 맞음	상대 실책	희생 타	삼진	안 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A)	(B)	(C)	(D)	(E)	(F)	(G)	(H)	(I)	(J)
김00	334	10	3	5	3	20	74	18	5	17
이00	324	15	4	6	2	21	51	24	2	7
최00	289	8	2	3	1	14	50	30	1	8
박00	123	6	0	2	5	5	12	10	3	1
남00	310	18	5	1	3	13	28	15	5	12
오00	156	15	6	5	1	15	39	1	1	0

<정 보>

- $\text{출루율} = \frac{\text{출루 수}}{\text{타석 수}(A)}$, $\text{타율} = \frac{\text{안타 수}}{\text{타수}}$, $\text{장타율} = \frac{\text{루타 수의 합}}{\text{타수}}$
- $OPS = \text{출루율} + \text{장타율}$
- 타석 수(A)는 타석에 들어선 횟수를 의미함
- 안타 수 = 1루타(G) + 2루타(H) + 3루타(I) + 홈런(J)
- 출루 수 = 볼넷(B) + 몸에 맞음(C) + 상대 실책(D) + 안타 수
- 타 수 = 타석 수(A) - 볼넷(B) - 몸에 맞음(C) - 희생 타(E)
- 루타 수의 합 = $1 \times 1\text{루타}(G) + 2 \times 2\text{루타}(H) + 3 \times 3\text{루타}(I) + 4 \times \text{홈런}(J)$

<보 기>

- ㄱ. 김00 선수는 타석 수와 출루 수가 가장 많으며, 출루율 또한 가장 높다.
- ㄴ. 홈런을 가장 많이 친 김00 선수의 장타율이 가장 높고, 홈런을 하나도 못 친 오00 선수의 장타율은 가장 낮다.
- ㄷ. 루타 수의 합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와 장타율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는 동일하다.
- ㄹ. OPS가 높은 순서는 김00, 최00, 이00, 오00, 남00, 박00 순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6. 다음 <표>는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현황
(단위: 개, %)

사업장 규모	2016년			2017년		
	도입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사업장 도입률	도입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사업장 도입률
5인 미만	619,517	68,865	11.1	659,198	74,360	11.3
5~9인	307,047	()	30.0	320,042	()	31.5
10~29인	195,414	()	51.9	198,753	()	53.4
30~49인	35,207	24,092	68.4	35,101	24,371	()
50~99인	26,822	20,591	76.8	26,712	20,676	()
100~299인	14,768	12,330	83.5	14,732	12,270	83.3
300인 이상	5,009	4,551	90.9	5,047	4,583	90.8
전체	1,203,784	323,864	26.9	1,259,585	343,134	27.2

※ 사업장 도입률(%) = $\frac{\text{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text{퇴직연금 도입대상 사업장 수}} \times 100$

<표 2>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

사업장 규모	2016년			2017년		
	가입대상 근로자	가입 근로자	근로자 가입률	가입대상 근로자	가입 근로자	근로자 가입률
5인 미만	968,814	115,667	11.9	1,032,169	()	12.2
5~9인	1,176,008	311,470	26.5	1,231,271	344,355	()
10~29인	1,853,431	787,776	42.5	1,901,529	()	44.2
30~49인	791,407	401,363	50.7	796,510	414,234	52.0
50~99인	1,035,203	566,744	54.7	1,048,797	588,170	()
100~299인	1,405,843	834,275	59.3	1,429,152	866,955	60.7
300인 이상	3,357,747	2,203,907	65.6	3,390,733	2,258,075	66.6
전체	10,588,453	5,221,202	49.3	10,830,161	5,437,938	50.2

※ 근로자 가입률(%) = $\frac{\text{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text{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수}} \times 100$

<보 기>

- ㄱ. 2017년에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수와 가입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ㄴ. 2016년을 기준으로 규모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5%이다.
- ㄷ. 2016년과 2017년 모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 도입대상 사업장 수와 도입사업장 수는 적다.
- ㄹ. 2017년을 기준으로 규모가 49인 이하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체 가입 근로자 수의 40% 이상이다.
- ㅁ. 2016년 대비 2017년에 퇴직연금 도입률이 증가한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근로자 가입률도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17. 다음 <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공개 결정 및 비공개 결정의 연도별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2012~2017년)
(단위: 건)

연도	정보 공개 청구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법령상 비밀·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기타
2012	333,006	316,446	5,004	2,004	4,913	1,746	2,893
2013	364,806	349,516	4,381	2,358	4,434	1,665	2,452
2014	381,496	364,661	4,600	2,200	5,183	1,610	3,242
2015	458,059	440,016	4,578	2,681	5,278	2,117	3,389
2016	504,147	481,812	5,626	3,771	6,193	2,786	3,959
2017	563,597	538,466	6,218	4,935	6,482	3,583	3,913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된 해에 모두 결정되며,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됨

<보 기>

- ㄱ. 정보공개 청구 건수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ㄴ. 주어진 기간 동안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 ㄷ. 주어진 기간 동안 법령상 비밀·비공개와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합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합보다 매년 적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8. 다음 <표>는 학생 A~E의 영어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 <표>와 <순위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순위를 산정할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E의 영어 시험 성적
(단위: 점)

학생	독해	청해	회화	작문
A	28	25	23	26
B	30	22	19	27
C	27	19	22	30
D	25	26	24	25
E	18	30	30	18

<순위 산정방식>

- 가 방식: 4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 5위로 하되 4개 과목의 총점이 동일한 학생의 경우 회화 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 나 방식: 과목별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 5위로 하되 과목별 등수의 합이 동일한 학생의 경우 회화 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 다 방식: 25점 이상인 과목의 수가 많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1, 2, 3, 4, 5위로 하되 25점 이상인 과목의 수가 동일한 학생의 경우 회화 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로 함

<보 기>

- ㄱ. 가 방식과 나 방식으로 산정한 B의 순위는 동일하다.
- ㄴ. 나 방식과 다 방식으로 산정한 E의 순위는 동일하다.
- ㄷ. E의 회화 과목 점수가 25점으로 변동되면 모든 방식에서 E의 순위가 변동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9. 다음 <표>는 H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손익 현황 및 부채감축계획 이행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 <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표 1> H공공기관 재무 현황(2012~2016년)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36,247	52,206	58,520	46,875	43,658
자본	13,422	()	18,318	669	()
부채	22,825	35,235	40,202	46,206	52,066
금융성부채	20,384	32,977	37,373	42,842	49,666
비금융성부채	2,441	2,258	2,829	3,364	2,400
부채비율	170	()	()	()	—

※ 자산 = 자본 + 부채
 ※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본}} \times 100$

<표 2> H공공기관 손익 현황(2011~2016년)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2,253	2,835	3,268	2,745	2,979	3,305
영업이익(손실)	379	-317	-55	-2,738	-11,573	-3,136
당기순이익(손실)	327	-212	189	-2,635	-20,636	-9,874

<표 3> H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이행 실적(2014~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2014			2015		
	계획(A)	실적(B)	달성률(B/A)	계획(A)	실적(B)	달성률(B/A)
사업조정	2,100	5,086	242.2	4,728	5,603	118.5
자산매각	6,293	219	()	1,127	762	()
해외출자지분	5,476	153	()	419	157	()
본사유형자산	743	66	8.9	593	593	100.0
국내투자사업	74	—	0.0	115	12	10.4
경영효율화	32	40	125.0	35	38	108.6
인건비절감	—	—	—	—	—	—
경비절감	15	21	140.0	16	25	156.3
사업비절감	17	19	111.8	19	13	68.4
자본확충	1,063	759	71.4	—	—	—
유상증자	449	142	31.6	—	—	—
출자전환	614	617	100.5	—	—	—

<보 고 서>

- H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 2014년도 약 219%에서 2015년도 약 6,907%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자본이 -8,408억원으로 급감하였다.
- 손익흐름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 2015년 매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234억원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가 8,835억원 확대되었고, 당기순손실액은 전년대비 600% 이상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이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감축계획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 자산매각의 경우, 2014년 219억원을 매각하여 계획 대비 약 3.5%를 달성하였고, 2015년 762억원을 매각하여 계획 대비 달성률은 약 67.6%이었다.
- 특히 ㉤ 해외출자지분 매각의 경우 2014년 계획액은 5,476억원인데 실적은 153억원에 불과하여 달성률이 약 2.8%였고, 2015년의 경우 달성률은 40%대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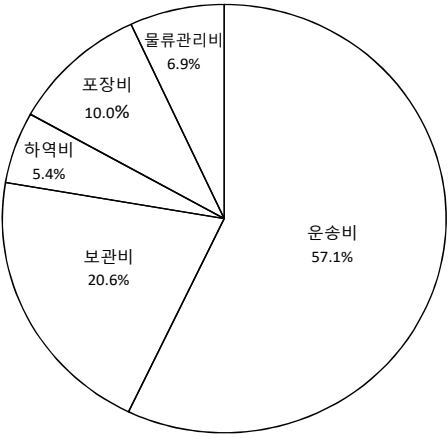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 다음 <표>는 2016년 업종별 물류비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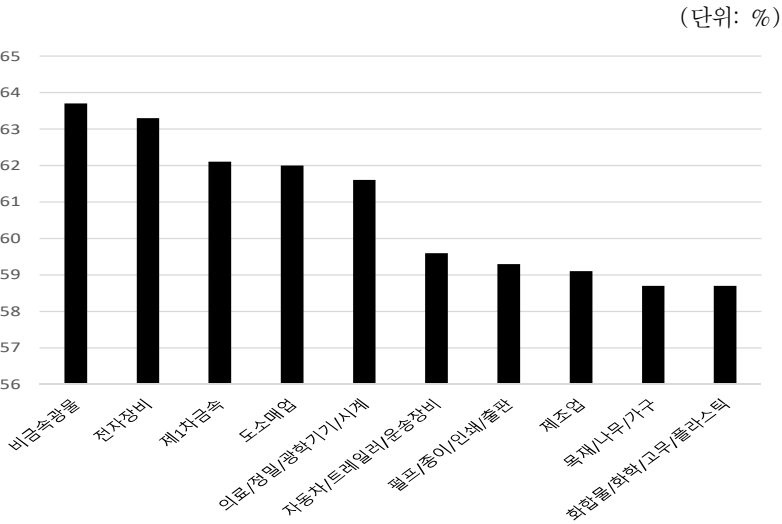
<표> 업종별 물류비 현황(2016년)
(단위: %)

구분		사례수 (개)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물류 관리비
제조업	소계	1,234	59.1	22.4	3.0	7.4	8.1
	대기업	228	58.7	24.0	3.6	7.7	6.0
	중소기업	1,006	59.2	22.0	2.9	7.4	8.5
도소매업	소계	246	62.0	24.5	3.6	4.8	5.1
	대기업	109	62.2	24.4	3.4	5.4	4.6
	중소기업	137	61.8	24.7	3.8	4.3	5.4
음식료품		95	56.2	23.7	2.5	9.6	8.0
섬유/의복		87	57.1	20.6	5.4	10.0	6.9
가죽/가방/마구/신발		42	53.1	18.8	0.9	15.9	11.3
목재/나무/가구		59	58.7	22.4	4.1	7.5	7.3
펄프/종이/인쇄/출판		64	59.3	22.3	1.5	6.4	10.5
코크스/석류/석탄		32	57.7	28.2	3.7	2.9	7.5
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		130	58.7	23.7	3.3	6.9	7.4
비금속광물		81	63.7	23.4	2.1	3.8	7.0
제1차금속		89	62.1	23.2	2.6	5.7	6.4
금속가공		132	58.2	21.6	2.0	7.1	11.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109	56.2	21.9	3.9	7.0	11.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72	61.6	21.7	3.3	5.2	8.2
전자장비		98	63.3	23.2	3.1	5.5	4.9
자동차/트레일러/운송장비		144	59.6	21.2	3.2	10.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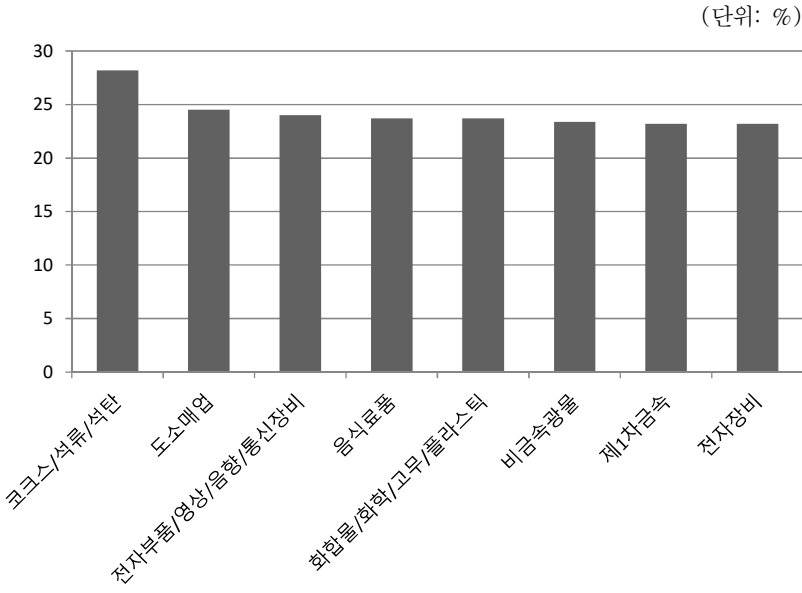
① 섬유/의복업의 물류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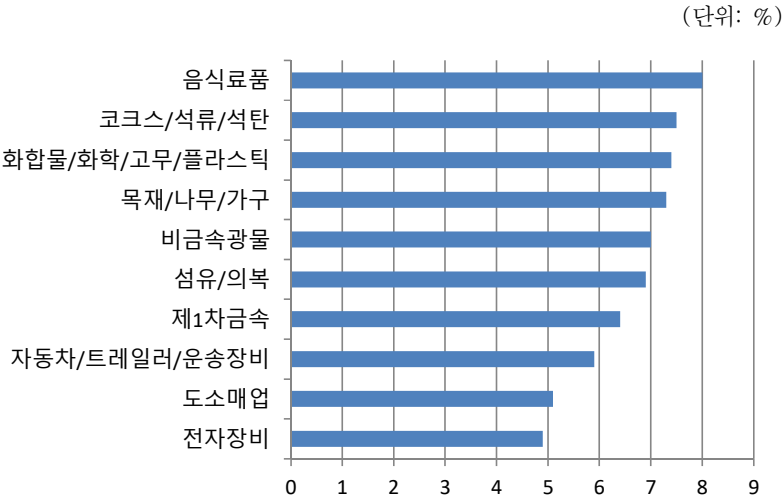
② 운송비 비중 상위 10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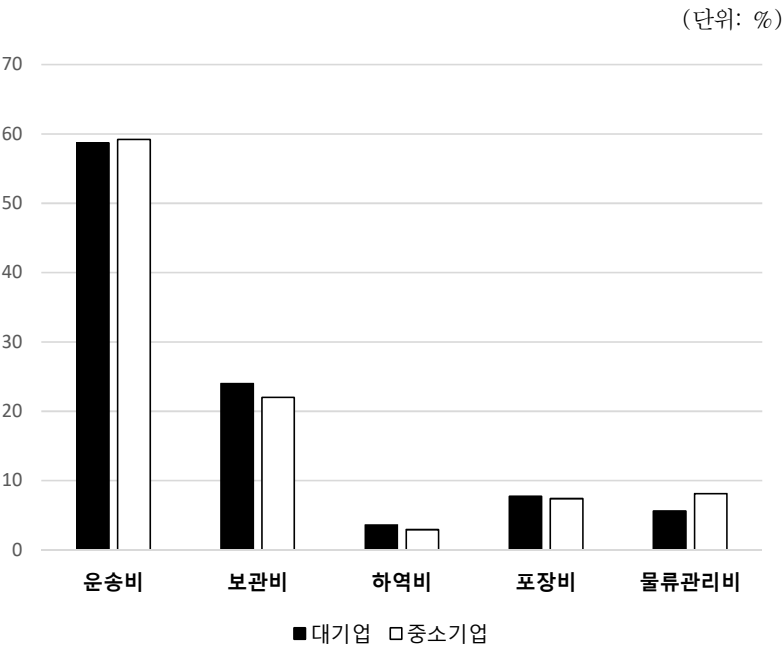
③ 보관비 비중 상위 8개 업종



④ 물류관리비 비중 하위 10개 업종



⑤ 제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물류비 비중



21. 다음 <표>는 지역별 주택 동 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지역별 주택 동 수 현황
(단위: 동, %)

지역	2013	2016		2017	
	동 수	동 수	비율	동 수	비율
전국	115,977	125,944	100.0	130,354	100.0
서울	19,845	20,715	16.4	20,967	16.1
부산	7,328	7,834	6.2	7,999	6.1
대구	5,540	6,105	4.8	6,298	4.8
인천	6,521	6,776	5.4	6,942	5.3
광주	3,582	4,002	3.2	4,113	3.2
대전	3,355	3,590	2.8	3,673	2.8
울산	1,654	1,881	1.5	1,974	1.5
세종	123	716	0.6	975	0.8
경기	30,055	32,610	25.9	34,096	26.2
강원	3,851	4,174	3.3	4,242	3.3
충북	3,553	4,005	3.2	4,185	3.2
충남	4,930	5,483	4.4	5,776	4.4
전북	4,099	4,460	3.5	4,566	3.5
전남	3,982	4,499	3.6	4,793	3.7
경북	6,149	6,685	5.3	6,968	5.3
경남	10,498	11,191	8.9	11,526	8.8
제주	912	1,218	1.0	1,261	1.0

- ① 2013년과 2017년 동 수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은 동일하다.
- ② 2016년 동 수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이다.
- ③ 2017년 동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이다.
- ④ 2013년 대비 2016년 또는 2016년 대비 2017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동 수가 감소한 지역이 있다.
- ⑤ 2017년 전국 동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2배가 2013년 대비 2016년 전국 동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22. 다음 <표>는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취업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답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특성화사업 참여학과 취업률
(단위: %, 명)

참여학과	1차 취업률			2차 취업률	최종 취업률	참여 학생 수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경영학과	80	62	77.5	()	74.0	200
미디어정보학과	60	46	76.7	()	75.0	200
문화콘텐츠학과	40	27	67.5	()	70.0	150
산업디자인과	50	31	()	()	71.0	150
소비자학과	60	48	()	()	76.0	150
심리학과	50	36	()	()	73.0	150
특성화사업단 전체	340	250	—	—	()	1,000

- ※ 취업률(%)= $\frac{\text{취업자}}{\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 ※ 학과별 최종 취업률(%)= $\frac{1}{2}(\text{1차 취업률} + \text{2차 취업률})$
- ※ 특성화사업단 전체 최종 취업률(%)= $\sum(\text{학과별 최종 취업률} \times \text{가중치})$
- ※ 가중치 = $\frac{\text{학과별 참여 학생 수}}{\text{전체 참여 학생 수}}$

<보 기>

○ 1차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이고, 가장 낮은 학과는 (㉡)이다.

○ 2차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이고, 가장 낮은 학과는 (㉣)이다.

○ 특성화사업단 전체 학과의 최종 취업률은 (㉤)%이다.

- ㉠ ㉡ ㉢ ㉣ ㉤
- ① 경영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소비자학과 경영학과 74.5
- ② 소비자학과 산업디자인과 경영학과 소비자학과 74.5
- ③ 소비자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경영학과 74.5
- ④ 경영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소비자학과 심리학과 73.3
- ⑤ 소비자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경영학과 73.3

23. 다음 <표>는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연간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명목임금	전체근로자	3,425	3,518
	상용근로자	3,623	3,707
	정액급여	2,838	2,936
	초과급여	225	226
	특별급여	560	545
	임시·일용근로자	1,469	1,539
소비자물가지수		100.97	102.93
실질임금	전체근로자	3,392	(A)

※ 실질임금 = $\frac{\text{명목임금}}{\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표 2>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현황
(단위: 시간)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	상용	임시·일용	전체	상용	임시·일용
시간	171.0	176.9	112.8	167.8	173.3	109.8

- ① 2016년 대비 2017년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더 크다.
- ②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당 명목임금액은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2만원보다 크다.
- ③ 상용근로자의 임금 중 정액급여의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
- ④ 2017년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 (A)는 2016년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보다 크다.
- 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였다.

24. 다음 <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의 실업률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OECD 국가의 실업률(2015~2017년)
(단위: %)

대륙	국가	2015	2016	2017
아시아	한국	3.6	3.7	3.7
	이스라엘	5.3	4.8	4.2
	일본	3.4	3.1	2.8
	터키	10.2	10.8	10.8
북아메리카	캐나다	6.9	7.0	6.3
	멕시코	4.3	3.9	3.4
	미국	5.3	4.9	4.4
남아메리카	칠레	6.5	6.7	7.0
유럽	오스트리아	5.7	6.0	5.5
	벨기에	8.5	7.8	7.1
	체코	5.1	4.0	2.9
	덴마크	6.2	6.2	5.7
	에스토니아	6.2	6.8	5.8
	핀란드	9.4	8.8	8.6
	프랑스	10.4	10.1	9.4
	독일	4.6	4.1	3.8
	그리스	24.9	23.5	21.5
	헝가리	6.8	5.1	4.2
	아이슬란드	4.0	3.0	2.7
	아일랜드	9.9	8.4	6.7
	이탈리아	11.9	11.7	11.2
	라트비아	9.9	9.6	8.7
	리투아니아	9.1	7.9	7.1
	룩셈부르크	6.7	6.3	5.5
	네덜란드	6.9	6.0	4.8
	노르웨이	4.3	4.7	4.2
	폴란드	7.5	6.2	4.9
	포르투갈	12.4	11.1	8.9
	슬로바키아	11.5	9.7	8.1
	슬로베니아	9.0	8.0	6.6
	스페인	22.1	19.6	17.2
	스웨덴	7.4	7.0	6.7
	스위스	4.8	4.9	4.8
	영국	5.3	4.8	4.3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6.1	5.7	5.6
	뉴질랜드	5.4	5.1	4.7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보 기>

ㄱ. OECD 국가 가운데 남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2017년에 각 대륙별로 실업률의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국가들은 2016년에도 각 대륙별 실업률의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크다.

ㄴ. OECD 국가 가운데 2015년에 각 대륙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의 수보다 감소한 국가의 수가 더 많다.

ㄷ. OECD 국가 가운데 남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제외하고 각 대륙별로 2017년 실업률의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들은 2017년 실업률의 전년대비 감소율도 가장 크다.

ㄹ. 2017년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800만명이고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6,70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실업자 수의 차이는 100만명 이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다음 <표>는 2010년과 2016년의 목적별·수단별 통행량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전국의 목적별·수단별 통행량(2010년·2016년)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6년	
		통행량	분포비	통행량	분포비
목적별	출근	17,331,355	21.98	21,850,443	25.07
	등교	4,847,898	6.15	3,553,113	4.08
	업무	6,530,704	8.28	6,589,888	7.56
	쇼핑	2,646,894	3.36	3,543,308	4.07
	여가	4,714,537	5.98	5,057,624	5.80
	귀가	34,111,033	43.24	38,074,889	43.68
	기타	8,685,728	11.01	8,486,395	9.74
	총 통행량	78,868,149	100.00	87,155,660	100.00
수단별	승용차	52,615,359	60.41	59,477,620	61.77
	버스	25,099,823	28.82	25,854,406	26.85
	일반철도/지하철	9,173,687	10.53	10,647,543	11.06
	고속철도	119,016	0.14	183,325	0.19
	해운	33,535	0.04	33,957	0.04
	항공	53,310	0.06	83,644	0.09
	총 통행량	87,094,730	100.00	96,280,495	100.00

- ① 2010년과 2016년의 귀가 목적 통행량 차이는 2016년의 등교 목적 통행량보다 크다.
- ② 2016년을 기준으로 목적별 총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통행 목적을 나열하면 귀가, 출근, 기타, 업무, 여가, 등교, 쇼핑 순이다.
- ③ 2010년에 비해 2016년 쇼핑 목적의 통행량은 약 0.71% 증가했고, 기타 목적의 통행량은 약 1.27% 감소했다.
- ④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수단별 총 통행량에서 버스를 사용한 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 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표>에 제시된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량이 증가했다.

26.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횟수(연령대별)
(단위: %, 회)

구분		10회 미만	10~29회	30~49회	50회 이상	평균
10대 이하	소계	78.2	15.7	4.9	1.2	7.0
	과의존위험군	18.5	49.2	25.8	6.5	21.7
	일반사용자군	92.3	7.7	0.0	0.0	3.5
20대	소계	21.5	47.0	20.8	10.7	24.0
	과의존위험군	28.5	45.7	15.1	10.7	22.2
	일반사용자군	18.5	47.6	23.2	10.7	24.8
30대	소계	23.8	40.4	21.8	14.0	26.8
	과의존위험군	21.4	32.0	28.6	18.0	32.7
	일반사용자군	24.3	42.3	20.3	13.1	25.5
40대 이상	소계	22.2	46.1	23.1	8.6	23.0
	과의존위험군	17.1	44.2	26.6	12.1	26.8
	일반사용자군	22.9	46.5	22.6	8.0	22.4

※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 증가하고 자제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임

<표 2> 1회 스마트폰 사용시간(연령대별)
(단위: %, 분)

구분		3분 미만	3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10분 미만	10분 이상 20분 미만	20분 이상	평균
10대 이하	소계	3.1	4.1	37.9	43.4	11.5	10.9
	과의존위험군	16.2	21.5	26.7	31.9	3.7	7.2
	일반사용자군	0.0	0.0	40.5	46.2	13.3	11.8
20대	소계	16.5	20.3	24.6	33.5	5.1	7.4
	과의존위험군	12.0	10.1	25.8	44.4	7.7	9.0
	일반사용자군	18.5	24.8	24.1	28.6	4.0	6.7
30대	소계	26.6	19.9	18.7	29.8	5.0	6.8
	과의존위험군	17.1	18.2	25.6	30.0	9.1	8.2
	일반사용자군	28.6	20.2	17.3	29.8	4.1	6.5
40대 이상	소계	18.9	25.5	24.4	28.0	3.2	6.8
	과의존위험군	11.1	8.3	44.7	32.5	3.4	7.7
	일반사용자군	20.0	28.0	21.3	27.5	3.2	6.6

<표 3> 연령대별 표본수 및 과의존위험군 비율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이상
표본수	29,712	2,651	5,144	19,712	2,205
과의존위험군 비율	18.6	19.2	30.3	17.3	12.9

<보 기>

ㄱ.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긴 연령층은 20대이다.

ㄴ. 1회 사용시간이 3분 미만인 40대 이상 응답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40대 이상 응답자 전체의 약 1.4~1.6%로 추정된다.

ㄷ. 30대의 경우 20대보다 1일 평균 사용횟수도 많고 1회 평균 사용시간도 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7. 다음 <표>는 음주 빈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연도별·성별에 따른 음주 빈도
(단위: %)

연도 항목	2010	2012	2014	2016		
				전체	남성	여성
안 마신다	31.7	30.8	35.6	33.1	20.9	47.7
월 평균 1회 이하	18.9	20.0	17.3	16.6	12.9	21.0
월 평균 2~3회	21.4	20.4	18.7	19.7	22.1	16.9
주 평균 1~2회	18.2	17.7	18.2	19.2	()	10.9
주 평균 3~4회	6.9	7.3	7.0	8.0	12.2	2.8
거의 매일	2.9	3.8	3.2	3.5	5.8	()

※ 각 응답자는 위에 제시된 6개의 항목 중 하나에 대답하였음
※ 응답 비율이란 당해 연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함

- 2016년 음주 빈도가 ‘월 평균 1회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는 ‘거의 매일’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의 6배보다 크다.
-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4년에 1.2배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2016년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수는 남성 응답자 수보다 많다.
- 2016년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응답 비율 차이가 두 번째로 큰 항목은 ‘주 평균 1~2회’이다.
- 2010년 대비 2012년에 응답 비율이 증가한 항목은 2개이다.

28. 다음 <표>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과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민간임금 접근율	84.4	85.2	83.7	84.5	84.3	83.4	83.2	86.0	—
공무원 처우개선율	0.0	5.1	3.5	2.8	1.7	3.8	3.0	3.5	2.6

※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 \frac{\text{공무원보수}}{\text{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 \times 100$$
※ n년도의 공무원 처우개선율(%)

$$= \frac{n\text{년도 공무원보수} - (n-1)\text{년도 공무원보수}}{(n-1)\text{년도 공무원보수}} \times 100$$

<보 기>

ㄱ. 2016년의 공무원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ㄴ. 2012년의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ㄷ.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29. 다음 <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흡연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6년)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9세 이상	6,015	2,592	3,423
	65세 이상	1,526	673	853
연령대별	19~29세	695	304	391
	30~39세	1,078	457	621
	40~49세	1,124	500	624
	50~59세	1,092	451	641
	60~69세	998	441	557
	70세 이상	1,028	439	589
거주지역별	동	4,853	2,087	2,766
	읍면	1,162	505	657
소득수준별	하	1,487	643	844
	중하	1,523	657	866
	중상	1,504	645	859
	상	1,501	647	854

<보 기>

ㄱ. 전체 응답자 수는 7,541명이다.

ㄴ. 남성 응답자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여성 응답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ㄷ. 응답한 여성 흡연자의 60% 이상이 30대, 40대, 50대에 분포하고 있다.

ㄹ. 60~64세 응답자 수가 65~69세 응답자 수보다 많다.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30. 다음 <표>는 1983년 이후 국내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선종별 침몰 선박 현황

구분	위해성 우려 선박						어선	기타	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가스운반선	케미컬탱커	소계			
선박 수 (척)	11	100	5	2	2	120	1,790	290	2,200
비율(%)	0.5	4.5	0.2	0.1	0.1	5.4	81.4	13.2	100

<표 2> 선박규모별 침몰 선박 현황

구분	10톤 미만	1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계
선박 수 (척)	1,065	863	272	2,200
비율(%)	48.4	39.2	12.4	100

<표 3> 해역별 침몰 선박 현황

구분	동 해	서 해	남 해	계
선박 수 (척)	452	823	925	2,200
비율(%)	20.5	37.4	42.1	100

<보 기>

- ㄱ. 선종별 침몰 선박 현황에서 위해성 우려 선박 중 화물선의 비중은 전체 침몰 선박 중 어선의 비중보다 크다.
- ㄴ. 동해에서 침몰한 어선의 선박 수는 전체 침몰 여객선의 4배 이상이다.
- ㄷ. 100톤 이상 침몰 선박의 총 톤수는 100톤 미만 침몰 선박의 총 톤수의 0.3배 이상이다.
- ㄹ. 남해에서 침몰한 100톤 미만의 어선은 최소 243척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1. 다음 <표>는 2007년과 2017년 행정구역별 주민등록관련 통계와 화재관련 통계를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행정구역별 주민등록관련 통계(2007년·2017년)

구분	인구수(만명)		세대수(만세대)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전국	4,913	5,097	1,869	2,152
지역1	1,283	1,264	504	541
지역2	1,251	1,422	478	583
지역3	496	517	190	223
지역4	518	514	193	220
지역5	788	796	286	333
지역6	577	584	218	252

<표 2> 행정구역별 화재관련 통계(2007년·2017년)

구분	발생건수(회)		재산피해액(천원)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전국	47,882	43,862	248,425	502,874
지역1	8,855	7,586	28,726	30,168
지역2	13,241	12,163	81,865	280,549
지역3	5,682	5,388	39,134	62,391
지역4	5,357	4,429	27,664	34,372
지역5	8,494	7,685	38,032	42,542
지역6	6,253	6,611	33,004	52,852

<보 기>

- ㄱ. 2007년에 주민등록인구 1인당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지역2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지역1이다.
- ㄴ. 2007년 대비 2017년에 지역1의 주민등록 1세대당 화재발생건수와 주민등록 1세대당 재산피해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역5의 주민등록 1세대당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한 반면 주민등록 1세대당 재산피해액은 증가하였다.
- ㄷ. 화재발생건당 재산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2007년에는 지역3이고 2017년에는 지역2이다.
- ㄹ. 2017년 주민등록 1세대당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지역6이고, 주민등록 1세대당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지역2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32. 다음 <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선별 이용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서울특별시 지하철 이용객 현황(2013~2017년)
(단위: 천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호선	110,640	112,538	106,926	106,673	102,534
2호선	567,236	576,484	567,369	564,333	555,675
3호선	206,607	209,696	203,493	203,642	204,541
4호선	228,686	230,355	224,628	224,831	217,606
5호선	218,953	221,192	218,792	218,519	217,960
6호선	125,466	128,626	128,659	129,424	129,432
7호선	265,207	270,242	267,373	264,533	258,837
8호선	59,754	60,690	60,935	62,208	64,994
9호선	88,275	92,416	101,455	107,395	108,869
합계	1,870,824	1,902,239	1,879,630	1,881,558	1,860,448

<보 기>

- ㄱ.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선 중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지하철 노선은 3개이다.
- ㄴ. 2013년 대비 2017년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선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용객이 1호선보다 적다.
- ㄷ.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호선, 3호선, 7호선 이용객의 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다.
- ㄹ.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짝수 노선 이용객의 합은 매년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 홀수 노선 이용객의 합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ㄴ, ㄹ

33. 다음 <표>는 S기획사의 부서별 근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S기획사 부서별 근무 현황

부서	직원	연간 회식 횟수 (회)	연간 연가 사용 일수 (일)	연간 초과근무시간 (시간)
X	a	6	6	312
	b		2	396
	c		4	192
Y	d	20	11	168
	e		14	120
	f		5	504
Z	g	30	10	240
	h		10	120
	i		10	12
	j		18	108

<정 보>

- 부서의 연간 회식 횟수를 α , 부서 직원의 연간 연가 사용 일수의 총합을 β , 부서 직원의 연간 초과근무시간의 합을 γ , 부서원의 수를 n 으로 하며, 월간 초과근무 최대인정시간을 T 라고 한다.
- 부서의 문화 선진도 점수(점) = $\frac{1}{\alpha} \times \frac{\beta}{n} \times \left(T - \frac{\gamma}{12 \times n}\right)$
- S기획사의 월간 초과근무 최대인정시간은 40시간이다.
- 부서의 문화 선진도 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보 기>

- ㄱ. 부서의 문화 선진도 점수가 높은 순서는 Z, X, Y 순이다.
- ㄴ. S기획사의 월간 초과근무 최대인정시간이 30시간으로 조정되더라도 부서의 문화 선진도 점수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 ㄷ. X부서의 연간 회식 횟수가 7회라면 X부서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 ㄹ. Z부서에 직원 h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Z부서의 문화 선진도 점수는 하락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34. 다음 <표>는 병원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들의 고혈압과 당뇨에 관한 응답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성별·연령별 고혈압 및 당뇨 환자(2010년·2015년)
(단위: 명, %)

구분		고혈압				당뇨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환자수	비율	환자수	비율	환자수	환자수
성별	남성	989	11.0	1,187	13.1	411	547
	여성	1,234	13.8	1,347	14.9	425	524
연령	29세 이하	2	()	7	()	7	4
	30~39세	56	1.9	46	1.6	24	29
	40~49세	227	7.3	230	7.4	94	115
	50~59세	562	23.2	608	20.6	213	260
	60~69세	681	44.0	691	41.6	250	299
	70~79세	570	54.6	656	59.1	205	257
	80세 이상	125	49.3	296	61.1	43	107
	65세 미만	1,168	7.4	1,239	7.8	450	555
	65세 이상	1,055	51.9	1,295	55.9	386	516

※ 비율은 성별 및 연령별 환자수를 해당 성별 및 연령별 응답인원으로 나눈 것임. 예를 들어 2010년도 80세 이상 응답인원은 $\frac{125명}{49.3\%}=254명$ 임
 ※ 설문조사의 항목은 성별, 연령, 고혈압 유무, 당뇨 유무로 구성되었음

<보 기>

- ㄱ. 2010년과 2015년 모두 남성응답자 수가 여성응답자 수보다 많다.
 ㄴ. 2015년 조사에서 여성응답자 중 당뇨환자의 비율이 남성응답자 중 당뇨환자의 비율보다 높다.
 ㄷ. 2010년과 2015년 모두 60~64세의 고혈압환자 수는 65~69세의 고혈압환자 수보다 적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5. 다음 <표>는 2013~2016년 식품군별 평균 열량 및 식품섭취량에 관한 자료이다. <조건>을 이용하여 A~E에 해당하는 식품군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식품군별 평균 열량
(단위: kcal)

식품군 \ 연도	2013	2014	2015	2016
A	1,008.35	992.03	999.13	940.66
B	88.79	89.73	87.18	82.40
C	1.50	1.99	1.93	2.05
D	80.03	91.61	94.84	91.08
E	6.24	5.54	5.92	5.27

<표 2> 식품군별 평균 식품섭취량
(단위: g)

식품군 \ 연도	2013	2014	2015	2016
A	298.19	293.68	299.99	285.86
B	299.80	307.95	296.77	280.76
C	5.01	5.95	5.78	5.89
D	171.70	190.53	198.34	191.19
E	12.73	22.44	27.52	24.68

<조 건>

- 2014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열량의 변동률이 가장 높은 식품군은 버섯류이다.
- 2014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열량이 감소한 식품군은 곡류·곡류제품과 해조류이다.
- 2014년 이후 평균 식품섭취량은 매년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
- 2013년 이후 과일류와 해조류는 평균 식품섭취량의 전년대비 증감 방향이 매년 서로 같다.

- A

B

C

D

E
- ① 곡류·곡류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일류 해조류

② 곡류·곡류제품 과일류 버섯류 채소류 해조류

③ 해조류 채소류 버섯류 과일류 곡류·곡류제품

④ 곡류·곡류제품 해조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⑤ 해조류 채소류 곡류·곡류제품 과일류 버섯류

36. 다음 <표>는 2001년과 2017년의 행정구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소득 및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행정구역별 생산 및 소득 현황(2001년·2017년)
(단위: 천원)

구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소득		개인소득	
	2001년	2017년	2001년	2017년	2001년	2017년
전국	14,594	33,657	14,494	33,659	8,964	18,448
서울	17,052	38,062	18,663	43,655	10,616	21,429
부산	10,665	24,293	11,963	27,199	8,539	18,332
대구	9,494	20,605	11,200	24,680	8,481	17,568
인천	12,780	28,757	11,761	28,928	7,979	17,550
광주	10,328	23,565	11,514	26,375	8,426	17,343
대전	10,793	24,361	12,532	27,826	8,461	18,454
울산	31,987	64,410	26,656	50,328	10,394	19,912
경기	14,069	32,347	14,693	33,868	9,126	18,580
강원	12,131	28,703	11,439	25,671	7,833	16,583
충북	14,204	38,034	12,588	30,926	8,093	17,030
충남	18,144	51,491	14,102	39,913	8,280	17,613
전북	11,426	26,569	11,133	24,550	8,086	16,848
전남	16,349	39,658	13,175	32,879	7,579	15,938
경북	16,186	38,406	13,378	32,177	8,165	16,504
경남	15,565	32,479	13,488	29,018	8,412	16,864
제주	11,389	28,420	11,641	29,218	8,477	17,464

※ 주어진 16개 시·도만을 고려함

<보 기>

- ㄱ. 2017년에 1인당 지역내총소득 대비 개인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 ㄴ. 2001년 대비 2017년에 개인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 ㄷ. 2001년에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1인당 지역내총소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이다.
- ㄹ. 2001년 대비 2017년에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7. 다음 <표>는 10개 팀이 참여한 2018년 한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한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 결과(2018년)

팀 명	승	패	무승부	승률
가	58	85	1	0.403
나	77	67	0	(f)
다	70	74	0	(g)
라	(a)	65	1	0.542
마	68	75	1	0.472
바	68	(b)	2	(h)
사	93	51	0	0.646
아	59	82	3	0.410
자	68	72	(d)	(i)
차	75	69	0	(j)
총계	714	(c)	(e)	—

※ 승률은 무승부를 포함하여 해당 팀이 참여한 전체 정규시즌 경기 수 대비 승수를 의미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2018년 한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는 총 720회 치러졌으며, 각 팀의 정규시즌 경기 수는 모두 동일함

- ① 2018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각 팀은 서로 16번씩 경기하였다.
- ② (a)에 들어갈 숫자는 78이고, (b)에 들어갈 숫자는 74이며, (d)에 들어갈 숫자는 4이다.
- ③ 승률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면 1위는 사팀이고 9위는 아팀이다.
- ④ 무승부를 제외하고 계산한 승률($=\frac{\text{승수}}{\text{승수}+\text{패수}}$)은 나팀이 라팀보다 높다.
- ⑤ (f)에 들어갈 숫자와 (j)에 들어갈 숫자 간 차이의 절댓값은 0.02보다 작다.

38. 다음 <표>는 A국 공무원 갑, 을, 병, 정의 2018년 기본연봉액과 성과평가 순위 및 2017년도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2019년 연봉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정의 기본연봉액 및 성과평가 결과

구분	계급	2018년 기본연봉액	2018년 성과평가 순위	2017년도 업무성과평가 결과
갑	5급	4,800만원	6위	S
을	4급	5,100만원	3위	B
병	5급	4,600만원	2위	A
정	4급	5,200만원	9위	B

※ 갑, 을, 병, 정의 모두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해당 부서의 인원은 총 10명임
 을 가정함
 ※ 갑, 을, 병, 정의 계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함

<정 보>

※ 2019년 연봉 = ① 2019년 기본연봉 + ② 2019년 성과연봉

① 2019년 기본연봉

= ① 2018년 기본연봉액 + ② 2018년 성과연봉 중 장관이 정하는 금액

- ① 2018년 기본연봉액: 2018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
- ② 2018년 성과연봉 중 장관이 정하는 금액: 2018년의 계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가산기준액’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가산)함

<가산기준액>

(단위: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47,000	44,800	41,600	37,000	31,000

<가산율>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 위 표 중 ‘등급’은 2017년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2018년 성과연봉 등급을 말함

② 2019년 성과연봉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8%	6%	4%	0

※ 단,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개인의 계급과 무관하게 평가대상 부서의 정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135,000	122,000	110,000	102,000	86,000

- ① 을-병-정-갑
- ② 을-정-갑-병
- ③ 을-정-병-갑
- ④ 정-을-갑-병
- ⑤ 정-을-병-갑

※ [39-40] 다음 <표>는 가구의 거처 점유형태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표 1> 가구의 거처 점유형태 추이(1995~2015년)

(단위: 천가구,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995~ 2015년 증감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자 가	6,910	53.3	7,753	54.2	8,828	55.5	9,390	54.1	10,850	56.8	3,940
전 세	3,845	29.7	4,040	28.2	3,557	22.4	3,766	21.7	2,961	15.5	-884
월 세	1,875	14.5	2,113	14.8	3,012	19.0	3,720	21.5	4,529	23.7	2,654
무 상	328	2.5	406	2.8	490	3.1	464	2.7	773	4.0	445
전 체	12,958	100	14,312	100	15,887	100	17,340	100	19,113	100	6,155

<표 2> 시·도별 가구의 자가점유율 현황(2015년)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자가 점유율	56.8	42.1	61.3	58.7	58.7	61.6	53.8	62.7	53.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가 점유율	52.3	61.9	65.1	65.4	68.6	73.4	69.6	66.5	58.3

<표 3> 시·도별 무주택가구 비율(2005년·2015년)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5년	39.7	49.6	39.8	42.3	35.1	43.2	42.6	37.0	-
2015년	37.8	49.8	35.1	37.4	36.4	35.5	40.3	32.7	36.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년	41.0	37.3	35.9	32.6	31.4	26.9	30.0	33.4	41.7
2015년	41.3	33.1	30.8	29.7	28.3	23.2	26.9	29.5	37.2

39.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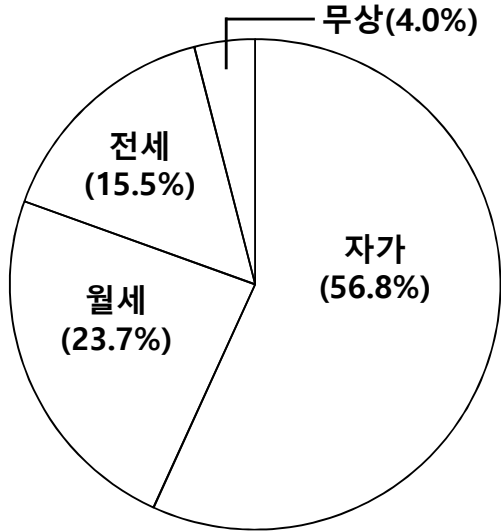
<보 기>

- ㄱ. 2015년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42.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데, 이는 전국 평균 56.8%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서울 다음으로 낮은 경기도에 비해서도 10.2%p나 낮다.
- ㄴ. 세종을 제외하고 2005년 대비 2015년 시·도별 무주택가구 비율이 증가한 시·도는 총 3개이다.
- ㄷ. 2015년 시·도별 자가점유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도는 전남, 경북, 전북, 경남, 충북 순이다.
- ㄹ. 전세가구 비율은 1995년 29.7%에서 2015년 15.5%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월세가구 비율은 1995년 14.5%에서 2015년 23.7%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ㅁ. 2015년 무주택가구 비율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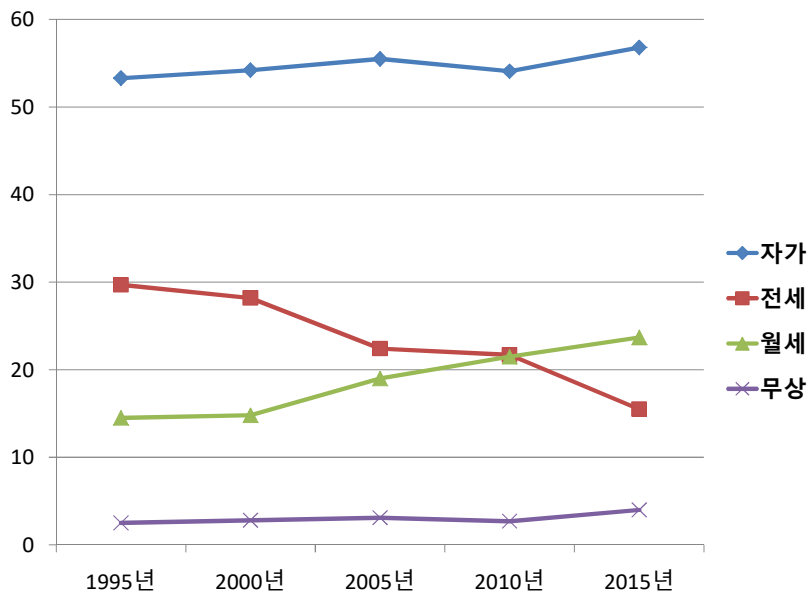
40. 다음 중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5년 가구의 거처 점유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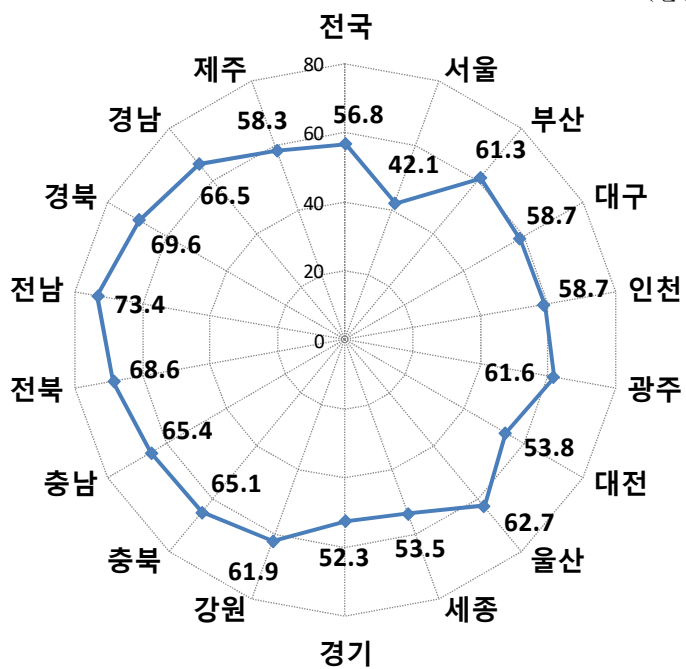
② 1995~2015년 가구의 거처 점유형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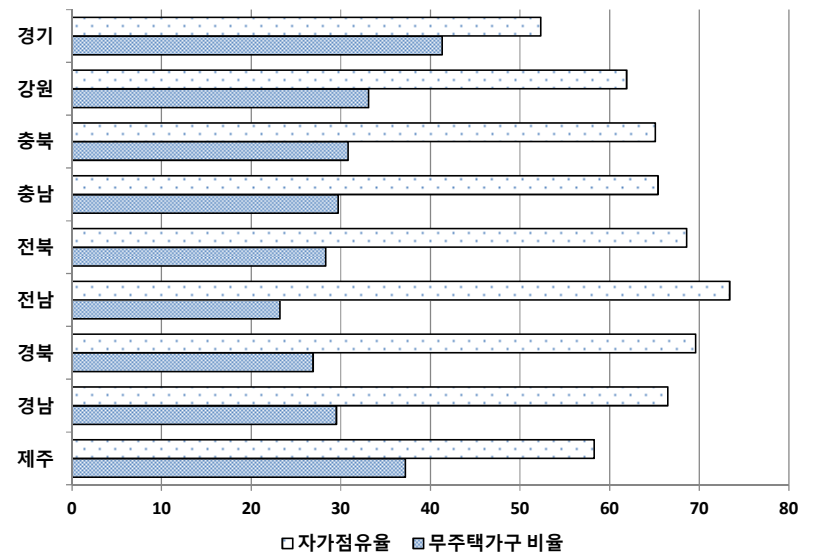
③ 2015년 시·도별 가구의 자가점유율

(단위: %)



④ 2015년 도지역의 무주택가구 비율 및 자가점유율 현황

(단위: %)



⑤ 2005년 대비 2015년 주요 대도시의 무주택가구 비율

(단위: %)

